

Gentleman

2015

THE NEW YEAR ISSUE

IT'S MY DESIRE

CAR OF THE MONTH

세련된 마초, 신형 머스탱

STYLING TIPS IN JANUARY

터틀넥과 슈트의 조합
오버사이즈 코트 입을 땀 어떻게

G LIST

- ▶ 새해엔 내 집을 짓고 싶다
- ▶ '작구'의 달인이 되고 싶다
- ▶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다
- ▶ 제철 해산물을 산지에서 먹고 싶다

누구나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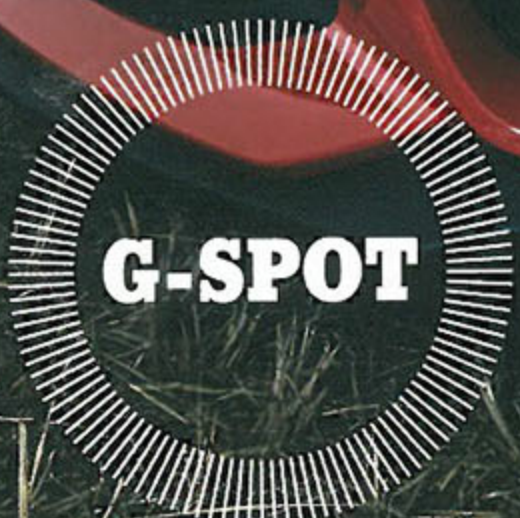
(미생)의 명품 조연 6인 인터뷰

GENTLEMEN OF THE MONTH

김장훈이라는 남자
사유리와 주병진이 만나면?
신사가 된 청년들, 인파니트

KOREAN NEW WAVE

황희 정승이 마셨다는 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방패연에서 모티프를 얻은 옷은?
옷칠로 만든 아이폰 케이스는? 한국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모던하게 재해석하는
새로운 코리안 웨이브에 주목한 <젠틀맨>의 신선한 리포트.



왜 나는 김동률과 토아에 실망했나
유나클로 입는 사회학자 노명우의 세속 담론
'기레기'와 '블로거'의 나라에서

GENTLEMAN KOREA Vol. 29
JANUARY 2015
정가 5,900원



9 772287 461508
ISSN 2287-4615

01

ART AND SCIENCE

현대 미술에서 미술가와 과학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예술에 대한 지독한 탐구정신으로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창조자들을 만나보자.

© 김윤철, 아령재(부분), 아크릴, 유리, 알루미늄, 포토닉 크리스탈, 자석, 모터, 컴퓨터, 일렉트로닉 마이크로 컨트롤러, 일렉트로 마그네틱필드 발생기, 우주선 컴퓨터, 아서랩, 2012/2014

과학자도 반한 미술 작품

김윤철 작가가 질료(質料)에 대한 사유에 집중한다면, 우순옥 작가는 아예 달에 대한 관심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공간과 시간 등 비물적인 상태를 구현하는 작가는 '달'이라는 것을 순수한 영혼이 사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한다. 이전 작품인 '달-산책'은 추운 겨울밤 인적이 드문 숲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따라오는 달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이다. '루나 오아시스'는 달에 소형 우주 온실을 개발한다는 기사를 읽고,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에 대해 상상력을 펼친 작품이다. '그곳'은 NASA에서 찍은 달의 모습을 느리게 반복하여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동경을 보여준다. 변화무쌍하며 덧없이 흘러가 부서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본질은 불변하는 영원과 같은 그 무엇일 것이라는 작가의 성찰을 담고 있다.

우순옥, 그곳

